

# LS동제련, 구자명 회장 승진선임

## 에스코 회장도 겸임 ... LS그룹 주요 계열사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LS그룹이 구자명 LS니꼬동제련 부회장을 동제련과 에스코 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오너 일가는 몇 개 계열사를 묶은 부문별 회장을 맡고 주요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이 CEO(최고책임자)를 맡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구자명 부회장이 부문 회장으로, 구자균 LS산전 사장과 Shimizu Yuji LS니꼬동제련 사장은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구자명 신임 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미국 페어리디킨슨대학과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Chevron을 거쳐 1997년까지 GS칼텍스의 전신인 호남정유에서 근무했다. 이후 LS상사와 에스코를 거쳐 LS니꼬동제련을 이끌어왔다.

LS그룹 관계자는 “구자명 회장은 앞으로 중남미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제련의 글로벌 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기업인 에스코의 신규사업 및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현안들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회장으로 승진한 구자균 LS전선 부회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0여년간 경영학 교수로 봉직하다 2005년 LS산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함께 승진한 Shimizu Yuji 부회장은 일본 Hitotsubashi대학을 졸업하고 일본광업, 니꼬금속제련 등에서 35년 이상을 근무하고 2008년 동제련 사장으로 부임했다.

LS그룹은 2008년 연관성 높은 계열사들을 묶은 사업부문제를 신설해 전선과 엠트론 사업부문은 구자열 회장이, 산전과 가온전선은 구자엽 회장이 맡고 있다.

한편, M&A와 국내 최초로 해저케이블 공장을 설립한 손중호 LS전선 부사장과 만성적자인 기계사업을 흑자로 전환시킨 심재설 LS엠트론 부사장이 각각 사장으로 승진해 각사의 경영을 책임지게 됐다.

LS그룹은 아울러 강성원 LS니꼬동제련부사장과 김성은 가온전선 전무(부사장 승진)를 양사 CEO로 선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0>